

동경해상, 전기차 충전기 보험 판매 확대¹⁾

- **[개요]** 일본 대형 손보사 동경해상은 2023년 6월 ENECHANGE*와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한 업무제휴를 체결하고, 보험상품이 결합된 전기차 충전기의 보급 확대를 위해 협업하기로 합의함

* ENECHANGE: 전기자동차 충전서비스 사업을 비롯하여 에너지 플랫폼 사업, 에너지 데이터 사업 등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

- 전기차 충전기 보험은 전기차 충전기기에 발생한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 및 각종 고장/파손 등을 보상하는 상품으로,
- ENECHANGE가 판매하는 모든 충전기기에 보험상품이 자동으로 추가되어 제공될 예정

- **[배경]** 탈탄소 실현을 위한 각국의 움직임에 발맞추어 일본 정부와 자동차 제조사들은 탄소 제로를 위한 전기차 보급 확대에 힘을 쏟고 있으나 여전히 전기차 시장 규모는 미미한 수준

- 일본 정부는 2035년까지 승용차 신차 판매 중 전동차* 비중을 100%로 달성하겠다는 목표와 현재 3만개소인 충전인프라 규모를 2030년까지 15만개소로 확충하겠다는 계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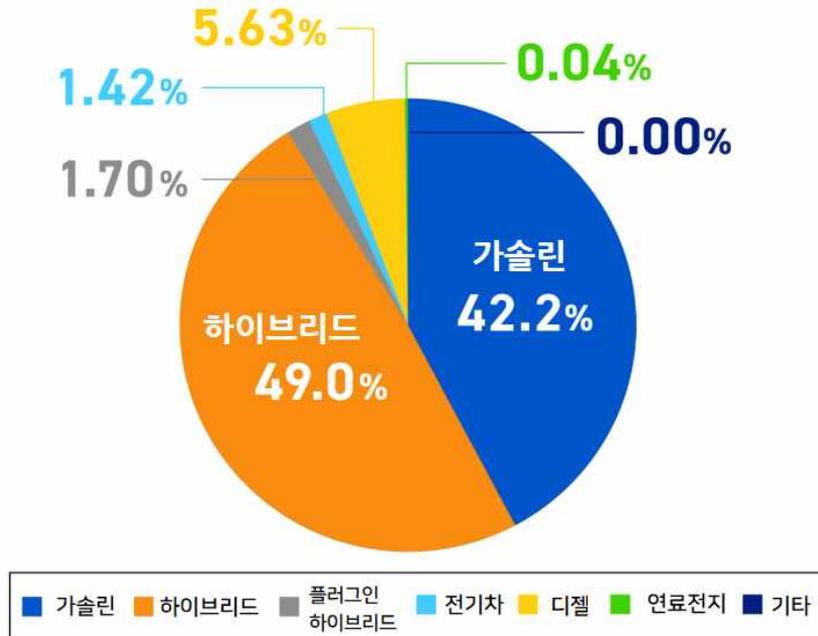
* 전기차, 하이브리드, 플러그인 하이브리드, 연료전지자동차 등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모든 종류의 자동차를 포함하는 개념

- 2022년 일본의 전기차 판매대수는 약 31,600대로 매년 약 50%* 씩 성장하고 있으나 여전히 전체 신차판매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.42% 수준으로 세계 평균 10%보다 매우 낮은 상황

* 2020년 약 15,000대, 2021년 약 21,000대 (보통승용차 기준. 경차 전기차는 제외)

1) 동경해상일동화재 「ENECHANGE 제휴, 보험 결합된 전기차 충전시장에 진출」(2023.06.09.)

[그림1] 2022년 연료별 신차 판매비중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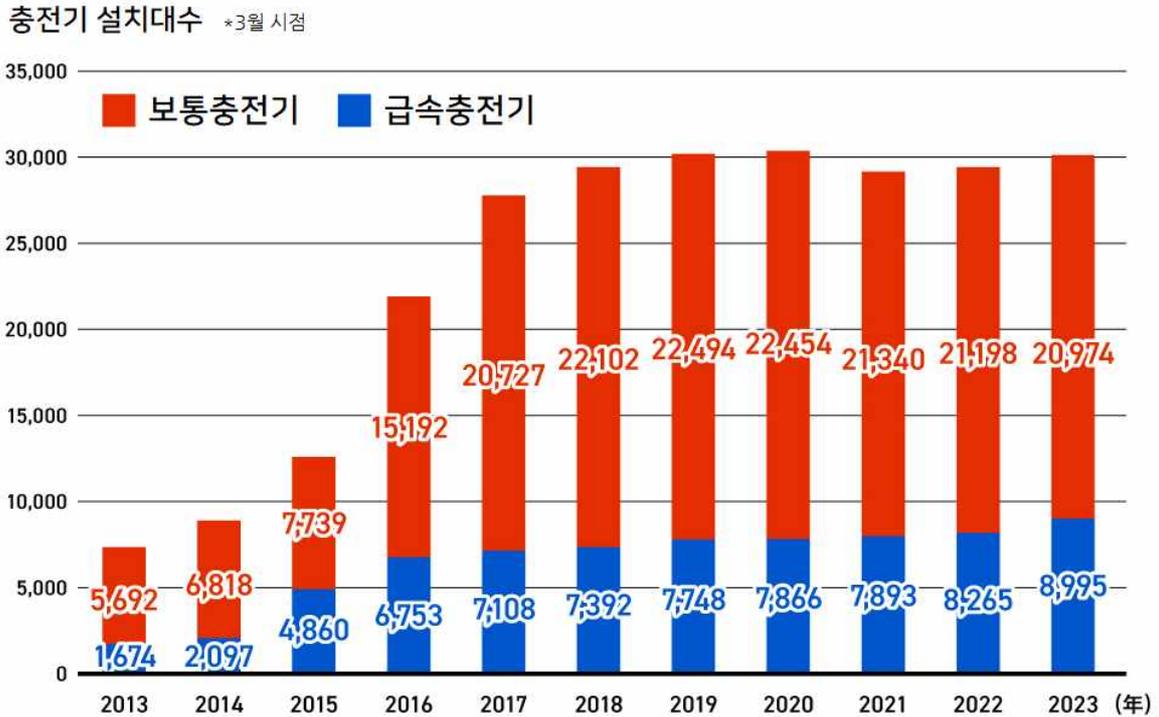
* 출처: 일본 자동차판매협회 연합회 「연료별 판매대수(승용차)」

- 한편 일본 전국의 전기차 충전소 규모는 2022년 3월 말 시점 약 3만대이나, 2017년 이후 증가폭이 정체됨
- 또한 이미 설치된 충전기는 출력량이 3.2kW인 보통충전기가 60% 이상인데 최근에는 출력량이 6kW 고속충전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시장 니즈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

[그림2] 가정용 전기차 충전스탠드 이미지



[그림3] 일본 공공 전기차 충전기 설치 추이



- 동경해상은 향후 고출력 충전기의 수요 확대에 주목하여, 6kW 충전기 업계 1위인 ENECHANGE와 제휴하여 충전기 설치를 희망하는 고객을 소개해주고 관련 보험을 결합한 판매를 추진

□ **(제휴 내용)** 전기차 충전기 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 및 각종 사고로 인한 파손 등을 보상하며, ENECHANGE가 판매하는 모든 충전기기에 보험상품이 자동으로 결합

- **(동경해상)** ①충전기 관련 손해보험상품 및 부대서비스 개발 및 제공, ② 동경해상 고객(사) 대상으로 충전기 설치서비스 및 업체(ENECHANGE) 소개
- **(ENECHANGE)** ①충전기 설치에 관한 상세 제안 및 고객 관리, ② 충전기에 관련된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 및 제공

[그림1] 동경해상의 충전기 소개사업 운영구조



* 출처: 동경해상일동화재 「ENECHANGE 제휴, 보험 결합된 전기차 충전시장에 진출」(2023.06.09.)

- **[향후 계획]** 본 사업을 새로운 수익창출의 기회로 보고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을 통해 얻은 데이터를 활용해 관련 보험상품을 다양하게 개발할 계획